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

[제25호](2016. 8/9/10)

서울시 용산
구 청파동
3가 119-2
진여원 홍보
팀

신묘엔 서울정사로 확대하고, 열반존상 안치 계획

‘서울포교소’에 열반존상과 신묘 개조·영조, 영존 교도인·신도인님의 존상이 함께 안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량의 명칭도 ‘신묘엔 서울’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로서 열반존상, 개조, 영조, 영존님의 존상이 모두 함께 안치되는 정사는 2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여태까지는 부산정사에만 안치되어 있었다.

열반존상과 개조, 영조, 영존님의 존상이 안치되기 전에 도량의 리모델링 작업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존상이 안치될 도량은 수미단 등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안치일정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으나,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묘 개조·영조, 교도인·신도인사마 존상>

천명 인도 불탑 제막식

‘서울포교소’에서는 지난 10월 8일 천명의 새로운 중생을 인도하기 위한 신도들의 기원이 깃들인 불탑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불탑은 두 개이고 높이는 모두 160cm로 공통되나, 아래 부분의 직경이 하나는 50cm, 다른 하나는 60cm의 원형으로 만들어졌다. 불탑은 25층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층에는 20개의 램프가 설치되어 있어 함께 500개의 램프가 점화된다. 기원불탑은 두 개가 제작되었는데 하나는 서울정사에, 다른 하나는 부산정사에 각각 전시된다. 이 불탑은 2015년 아마나시 신쵸지 제등호마에 단참으로 참좌한 교도들이 종정스님과 약속한 천명정진교도의 유치 및 구제의 영선을 건네기 위해 서울 교구의 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입원하여 만든 것이다.

입교 80년 성지 오야소노 단참 교도 증가

입교 80년을 맞이한 2016년 성지 오야소노 단참 교도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월 2일 야마나시 신쵸지 별원에서 개최된 제등호마에는 부산지역과 서울지역 교도 약 60명이 참좌하였다. 이번 단참의 일정은 10월 1일 한국 출발, 야마나시 신쵸지 별원 도착, 둘째 날에는 제등호마 참좌, 개조의 탄생지 나가사카 기념관 참배, 셋째 날에는 오야소노, 응현원, 점심도량 참배 후 귀국하는 일정이었다. 이 외에도 수명의 교도들이 그룹이 되어 오야소노 단참을 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김형태 교도, 신쵸지 별원 제등호마에 직중으로 참석

입교 80년을 맞이하여 부산교구의 김형태 교도가 지난 10월 2일 야마나시 신쵸지 별원에서 개최된 2일째 제등호마에 직중(職衆)의 역할을 맡았다. 김형태 교도는 부동명왕님을 등에 모시고 호마단에 안치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날 제등호마에는 14개 국가의 대표 14명이 직중 및 승사(承仕)로 종정스님을 도우며 함께 호마단에 임했다. 외국인 교도들이 호마단에서 직중 및 승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1985년 신노 개조께서 직접 도사로 올려주신 제등호마 이후 금년이 20회째이다.

청년 변론대회 뜨거운 열기 속에 부산정사에서 개최

제7회 청년변론대회가 10월 16일 부산정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변론대회의 테마는 입교 80년을 맞이하여 '신노를 전하다' 이었다.



<제7회 청년변론대회에 참석한 청년교도들>

청년 교도 4명의 변사(부산교구의 배장오, 김봉준, 서울교구의 박현주, 박지현)가 나서서 열띤 변론을 펼쳤다.

<이달의 유모어 : 춤 시리즈>

1. 스님들이 잘 추는 춤. 특히 상구보리에 응할 때 잘 해야 하는 춤은?
 2. 스님들이 추어서는 곤란한 춤은?
- ☞ 춤맞성안, 춤주거영

【체험담】 타고 태어난 약한 신체를 세가지 실천으로 극복, 자신감과 기쁨으로 신노를 전하고 있는 이현숙 교도!

2006년에 가르침에 댈어졌으나, 5년 후에야 정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한의원에 가면 원래 약하게 태어났다 하고, 병원에 가면 특별한 병명은 없었습니다.

약하게 태어난 저는, 평생 건강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남편과도 화합하기 힘들었습니다.



언니는 신노엔에 다니면 “운명을 바꾸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했지만, 일본 종교라는 선입견과 병은 종교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고집 때문에 한번 귀원 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교학생회 출신으로 불교를 하나의 철학으로 생각한 저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지만 몸이 아프고 마음은 여유가 없어 짜증만 늘어났는데, 언니를 보면 계속 일이 잘 풀리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무엇이든 알고 싶어하는 성격 때문에 주역을 공부해서 제 사주도 본 적이 있거나 운명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절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귀원 며칠 후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며 주위의 흙을 잡으면 부스러지고, 또 다른 흙을 잡으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에 단단한 넝쿨을 붙잡는 꿈을 꾸 후 웬지

부처님을 잡았다는 든든함을 느꼈고, 신노엔에 오기를 잘했다는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수행은 신기했고 지류학원 공부는 무척 즐거웠습니다. 몸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은 기쁘고 끝까지 해보자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그런 각오 때문인지 저를 대승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심수행을 거듭할수록 “세 가지 실천을 하라”는 영언을 받았습니다. 몸의 불편과 시간부족으로 봉사가 힘들어, 사람인도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도의 씨는 뿌려놓았지만 모두 절에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교수사마께서는 ‘신, 행, 해’로 가르쳐 주셨지만, 이론으로 먼저 알아야 되는 제성미 때문에 믿음이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힘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6개월간 계속해서 사람에 대한 배려, 인도를 제대로 하라는 영언을 받았습니다. 계속 같은 영언이 반복되자 힘든 마음에 상구보리를 했습니다. “공덕이 부족하니 공덕을 쌓고 진심으로 상대를 위해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때는 사람인도에 정진하라는 영언을 받지 않는 분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고민하다 스지오야께 상구보리를 하자, 영언대로 노력하고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라는 말을 들었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번뇌와 잡념으로 몸은 힘들고 마음은 시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인간본위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인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물러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절에 20년 넘게 다녔다는 지인을 인도하자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실천에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많은 음덕이 쌓여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영언을 받았고, 건강은 체질치료 등으로 눈에 띄게 좋아졌고, 저에게 맞는 약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건강에 대한 접시를 받았을 때, “하고 싶은 것 중 가르침을 가장 먼저 해간다면, 좋은 약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영언이 떠올랐습니다. 귀원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건강이 항상 걸림돌이었는데 가르침에 땀어져 건강해지고 가정, 남편과의 화합, 직장생활 모두 원만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찔하고 위험한 순간이 많았지만 정진을 하면서 일이 잘 풀어지는 느낌에, 저는 신노 부처님과 종정스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정진을 늦게 한 것이 후회되었지만, 지금이라도 귀한 가르침을 만나게 되어 한없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의 생각과 의지만으로는 안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만했는데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의 제섭, 섭수, 발고대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판단한 모든 결정은 삼엽, 삼독의 어리석고 아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정화되지 않는 한 운명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 마음그릇을 키우고 닦는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인도를 상대방이 좋아지길 바라는 진심으로 정진하자, 소속들의 귀원도 찾아졌습니다. 사람인도는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길이지만 봉사 및 환희실천과 함께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새벽 청소봉사 시에는 여태껏 알게 모르게 짓고도 닦지 못한 부분을 청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 게이슈사마의 참마음에 작은 기도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자 법요참좌도 즐거웠습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구제로 이어드릴 수 있는 영가천도가 훌륭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죽으면 흠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강했던 제가, 이렇게 영가천도를 해 나가자 신노엔의 영가천도가 더욱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나이로 돌아가신 교도인사마가 무슨 훌륭하신 일을 했을까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신노영계 개척, 중생구제를 위해 생명을 바치시고, 점심수행의 토대가 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큰 산을 넘은 것 같아 진심으로 기쁩니다. 앞으로는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 게이슈사마를 스승으로 모시고 자신감과 기쁜 마음으로 정진해 가려고 합니다. “신노엔의 가르침은 귀하고 훌륭하다. 자신감을 가지고 가르침을 전하라”는 영언대로 체험담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께 감사드립니다. 입교 80년, 점심도량·복건 신초지가 나란히 장엄되는 올해, 지금부터 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세 가지 실천행에 정진하며, “신노를 전해” 가겠습니다.